

LG전자, 진화한 ‘시그니처’ 선봬다

냉장고 등 AI 기반 제품 경쟁력 ‘UP’

내년 CES에서 신규 라인업 공개
식기세척기 등 10개 제품군 확대
핵심 부품 ‘AI 코어테크’ 적용

LG전자가 출시 10년째인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LG 시그니처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레인지 ▲월 오븐 ▲후드 ▲쿠키탑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까지 총 10개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출시 10년을 맞아 새단장한 시그니처는 AI기반의 편의기능도 다양하게 적용됐다. 새로운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대화를 이해하는 AI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됐다.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도 적용됐다. AI 코어테크는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LG전자가 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공개한다. 사진은 인테리어컷. /LG전자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끌어올린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철학을 담은 정제된 디자인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가되 국가·지역별 고객의 취향을 고려하는 맞춤 전략을 더한다. 지역·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고객들의 프리미엄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고객층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위치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시그니처 라인업에 공간에 딱 맞는 설치로 인

테리어와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고품격 디자인을 강조한다. LG전자는 시그니처존을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과 협업해 꾸민다. 공간은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빌트인 스타일과 메탈 소재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심리스 ▲시그니처 상징이 되는 골드 라인을 적용한 아이코닉 ▲화이트톤과 고급 우드 소재로 세련된 질감을 강조한 테일러드 등 세 가지 테마로 연출해 다양한 공간에서 어울리는 프리미엄 디자인의 매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DL케미칼 “여천NCC, 구조개편 등 책임 강화”

설비 섰다운 등 고강도 혁신 예고
“주주로서 자금조달·고용안정 노력”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를 두고 공동 대주주인 DL케미칼이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놴다. 단순한 비용 조정이나 부분 감산이 아닌, 대규모 설비 섰다운과 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고강도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DL케미칼은 최근 진행된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합의된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여천NCC 구조혁신안에 NCC 원가 보전 비중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



여천 NCC 전경. /뉴시스

시 중단된 3공장(47만 톤)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놴다. 당초 3공장의 영구 폐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보다 규모가 큰 1공장 또는 2공장(각 90만 톤)을 섰다운해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수익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 대해서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고 구

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단종하고, 일부 설비 라인은 스크랩하거나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여천NCC의 자금 조달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시설 감축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경우 내부 재배치와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생 노력에도 시황 악화로 유동성 문제가 재발할 경우 주주로서 금전적 추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DL케미칼은 여천NCC의 주주로서 원가 보전, 비즈니스 재편, 고용, 재무까지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두산에너지빌, 1300억 규모 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

중동 발전시장 수주 잇달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카타르 대형 가스 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수주하며 중동 발전 시장에서 가스복합발전 주기기 공급 실적을 잇달아 쌓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파실리티(Facility) E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고 15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1300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남동쪽 약 10km 지역에 총 2400MW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43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 2기와 보조기기를 포함한 핵심 주기기를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카타르에서의 연속 수주와 사우디 등 중동 전역에서의 공급 계약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국GM,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

“GMC 브랜드 확장 등 3억弗 이상 투자”

비자레알 사장, 한국시장 활성화 강조

한국GM이 국내 시장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주요 이정표를 제시했다.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한국GM은 인천 서구 GM청라 주행사험장 타운홀에서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해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벡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한국GM은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에 따르면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금액만 3억 달러(약 4429억원)에 달한다.

한국GM은 내년 초 부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GMC 브랜드는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내 불륜시장인 중형 SUV 등 4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한다. 캐딜락은 지난달 출시한 에스컬레이드 IQ에 이어 추가 전기차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북미를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GM 산하 4개 브랜드를 모두 도입한 지역은 한국이 최하다. 콜로시

부사장은 “판매·서비스 채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슈퍼크루즈(Super Cruise)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폭넓은 차량 포트폴리오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이날 청라 주행사험장에 신설된 신규 벅추얼 센터도 공개했다. 회사 내 분산돼 있던 ▲전기 시스템 테스트 벤치 ▲가상현실(VR) 워크-업 스테이션 ▲드라이버 인 더 루프 시뮬레이터 등 10개 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가상 개발 환경과 주행 시험장을 통한 물리적 테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개발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비자레알 사장은 “한국GM은 지난 20여 년간 1330만 대를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250만 대를 판매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차량 판매의 전주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고객을 위한 첨단 주행 기술을 도입해 한국 자동차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한국 시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美 히토류 자석공장 설립 추진

버지니아주와 협력 방안 논의

LS전선이 미국에 히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LS전선은 신규 투자 후보지를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로 선정하고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며, 현재 버지니아주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히토류 자석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미국 내 생산 기업은 극소수에 그쳐 공급망 다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해 왔다.

생산된 영구자석은 주요 완성차 및 전장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며, 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미국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



폴 대버 미국 상무부 차관(왼쪽부터),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 히토류 자석 공장 투자 발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국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S전선은 미국 내 세각선과 고품질 구리 소재 생산도 검토 중이다. G M, 현대차 등에 세각선을 공급해온 만큼, 영구자석 생산까지 갖추면 모빌리티 핵심 소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HJ중공업, 美 해군 군수지원함 MRO 계약

〈유지·보수·정비〉

유상철 대표 “MRO 경쟁력 인정받아”

HJ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첫 계약을 체결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 소속 4만 톤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 정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정의 운용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MRO와 개선 작업이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부산 영도

조선소 안벽에서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 및 주요 시스템 점검·수리, 부품 교체, 도장 작업 등을 진행한 뒤 내년 3월 말쯤 함정을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 해군이 요구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해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